

동강대 한국어학당, 겨울학기 입학식 개최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한국어학당 겨울학기 신입생 27명을 맞이했다. 동강대 한국어학당은 23일 오전 교내 보건관 율곡홀에서 베트남 학생 27명이 참여한 가운데 겨울학기 입학식을 개최했다. 동강대 한국어학당은 외국인 학생들이 국내 유학의 필수조건인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봄·여름·가을·겨울학기 나뉘어 신입생을 모집하고 1년 과정으로 운영된다. 지난 3월 개소한 동강대 한국어학당은 그동안

봄·여름·가을학기를 통해 각각 20명, 23명, 28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동강대 한국어학당은 신입생 선발을 위해 베트남 대학과 국내외 어학원, 전문대학 최초 외국인 유학생 플랫폼 기업 등과 협약을 맺었다. 지난해부터 베트남 응에안 무역관광대학교, 한베산업기술대학교 등 협약 대학을 방문하고 현지에서 학생 면접을 실시하는 등 활발한 국제교류에 나서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전남적십자사, 인지건강 주거안전키트 전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박재홍)는 지난 19일 나주 삼영동에서 '크리스마스에도 레드크로스-DIY 봉사활동 및 치매안심프로젝트'를 성황리에 마쳤다. '크리스마스에도 레드크로스' 프로그램은 시민 봉사자들이 적십자 봉사원과 함께 봉사활동으로 사전에 제작한 목도리를 '인지건강 주거안전키트'와 함께 포장해 나주 지역 노인 시설에 직접 전달하는 활동이다.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연계해 광주·전남 지역 내

인도주의 활동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나주 지역 노인 50여명과 시민 봉사자 및 적십자 봉사원이 참여하는 등 개방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날 제작된 '인지건강 주거안전키트'는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매트, 모션감지센서 등으로 구성됐다. 목도리 및 키트 전달 뿐만 아니라 노인 대상 스마일 힐링 체조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시민 봉사자들은 "치매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서재필 언론인상 수상



제7회 서재필(徐載弼) 언론인상 수상자로 성한용(65·사진)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가 선정됐다.

송재 서재필 언론인상 수상자 선정위원회는 23일 성한용 선임기자가 한겨레신문 사회부장, 정치부장, 편집국장을 지낸 후 2011년 현장으로 복귀해 신뢰받는 보도와 균형잡힌 논설을 통해 일관된 저널리즘 정신을 실천해 온 점, 언론인으로서의 품위와 윤리를 지켜 온 점을 선정이유로 밝혔다.

대전 출신으로 배재고와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성한용 선임기자는 2011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2017년 검찰총장추천위원회와 검찰개혁위원회, 2021년 국회국민통합위원회 등을 맡았으며 저서로는 '디제이는 왜 지역갈등 해소에 실패했는가'가 있다.

한편, 서재필 언론인상은 송재 서재필 선생의 자주 자강정신을 기리기 위해 2018년 제정됐다. 시상식은 서재필 선생 탄생 161주년인 내년 1월 7일 오전 11시 광주 빛고를 아트스페이스 소공원에서 열린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된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TV프로그램 2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and Program Name. Lists various news, entertainment, and educational programs for December 24th.

TV프로그램 2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and Program Name. Lists various news, entertainment, and educational programs for December 25th.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24일 (음 11월 24일 壬戌) ☎ 010-9790-8237

36년생 하강하고 여겨왔던 것 속에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48년생 투명하고 정확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60년생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72년생 약천후가 예상된다. 84년생 인간 관계 때문에 힘겨워하게 되어 있다. 96년생 단독으로 살아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행운의 숫자 : 04, 95

39년생 기본 방향에 대한 감각을 잃지 말아야겠다. 51년생 첫눈에 마음에 든다고 길한 것은 절대로 아님을 알아. 63년생 움직이는 보다는 가만히 있는 것이 훨씬 낫다. 75년생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기쁨이 올 것이다. 87년생 다자 관계까지 아우르는 것이 연쇄적인 효과를 낳는다. 99년생 쉼 먹고 알 먹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6, 78

42년생 큰 소리가 나지 않게 조용히 처리하자. 54년생 상당히 기다리고 있어야만 가닥이 잡힐 것이다. 66년생 아직은 시기 상조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78년생 서두르는 것은 착오만을 야기할 뿐이니 차분하게 진행해야겠다. 90년생 파격적인 변화가 예고되는 시점이다. 02년생 아울러 처리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행운의 숫자 : 11, 92

45년생 작은 현상이나 대범하게 넘길 수 있어야겠다. 57년생 혼동하기 쉬우니 어느 길도 물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69년생 주어진 국면에 적절해야만 제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81년생 결과적으로 인내가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다. 93년생 공명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05년생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리라. 행운의 숫자 : 09, 71